

이슈브리핑17-02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 인선과 도전과제

ISSUE
BRIEFING

2017

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트럼프 당선인의 행정부 인선과 도전과제

김영준(동북아전략연구실)

트럼프 행정부 1기를 이끌 15개 장관직 중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와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를 제외한 13개 부처 장관 내정자들이 발표되어 1월 20일 공식 취임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의 인선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현재까지 내정된 이들은 그 출신 배경에 따라 크게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그룹은 사업가 및 금융권 출신 그룹이다. 이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로 엑손모빌에서 평생을 보내다시피 한 렉스 킬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 내정자를 꼽을 수 있으며, 변호사이자 패스트푸드 체인점 CEO인 앤드류 퍼즈더(Andrew F. Puzder) 노동장관 내정자, 골드만삭스 출신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 재무장관 내정자, 금융투자자이자 구조조정 전문가인 윌버 로스(Wilbur Ross) 상무장관 내정자가 이 범주에 속한다.

두 번째 그룹은 의회 출신이다. 연방 하원의원 7선의 톰 프라이스(Tom Price) 보건장관 내정자, 알라바마주 법무장관을 지내고 연방 상원의원 4선인 제프 세션스(Jeff Sessions) 법무장관 내정자가 이 그룹에 속한다.

세 번째 그룹은 군 출신인사들이다. 존 켈리(John Kelly) 국토안전장관 내정자는 중부군 사령관을 지냈고, 국방장관 내정자인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는 군에서 퇴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에 임명이 가능한 제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선택을 받았다. 라이언 징키(Ryan Zinke) 내무장관 내정자의 경우 몬태나 주 의회를 거친 현역 연방하원 의원이지만 연방하원에서 첫 임기를 겨우 마쳤고, 사실상 경력의 대부분을 군 특수부대에서 보낸 인물이므로 군 출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네 번째 그룹은 당 출신 인사들이다. 교육장관 내정자 벤티 디보스(Betsy DeVos)는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큰 기여를 한 러스트 벨트 지역에 속하는 미시간 주 공화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온 인물이다. 주택장관에는 공

화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벤 카슨(Ben Carson)이, 에너지장관에는 텍사스 주 지사를 지낸 공화당 출신의 릭 페리(Rick Perry)가 내정되었다. 교통장관에 내정된 일레인 차오(Elain Chao)의 남편은 1985년부터 연방상원의원으로 재임 중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 의원이다. 차오 본인도 공직 진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아버지 부시 행정부 시기인 1989년부터 1991년까지 교통부 차관을 지냈고, 아들 부시 행정부에서는 노동장관을 역임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의 인물들이 포진하게 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 가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우선 첫 번째 도전 과제는 행정부 내부의 조화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정 인사들 중 정부조직을 이끈 경험을 가진 이들은 많지 않을 뿐 더러 퍼즈더 노동장관 내정자처럼 부처의 고유 업무와 상반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이가 수장인 경우 해당 부처 공무원들과 갈등을 겪을 소지가 많다. 또 부처 간 갈등의 발생도 예견될 수 있는데,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부와 안보를 담당하는 국방부는 태생적으로 갈등적 관계이지만, 트럼프 내각에서 국무부장관으로 내정된 틸러슨은 본인이 공직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관료조직을 이끌어본 적도 없다. 국방부 장관 내정자 매티스와 국토안전부 장관 내정자 켈리는 군 고위 장성 출신이므로 공적인 조직을 이끈 경험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군 조직과 관료 조직은 생태가 다르다는 점 이외에 과연 민간인 출신이 이끄는 국무부와 협력과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우려를 낳게 한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조화이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워싱턴에서 오물을 제거하겠다고면서 정치적 기득권층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가 설정한 정책 방향들은 공화당 주류의 성향과 여러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과 의회 공화당 지도부는 이미 대러시아 정책에서 이견을 노출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해킹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향후 외교안보 정책에서 경제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적 문제들에 있어서 양측의 갈등 소지

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과제를 실제 집행해야 할 행정부 각료 내정자들 중 의회를 경험한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이 과연 의회의 협조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가 큰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도전과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안정성과 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요소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사관리 스타일이고, 두 번째 요소는 국정운영과정에서 측근 활용도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업가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이며 부동산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파산선고를 통해 여러 사업들을 청산 한 경험도 있다. 즉 뜻한 만큼 성과를 거두기 어려워지면 포기하고 정리하는 것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다. 아울러 자신이 고용한 사람의 역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람을 바꾸는 결정도 수없이 내려 본 사람이다. 경영자로서 그의 이런 경험은 장점일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의 위치에 오른 지금, 행정부의 주장들을 단기적 성과로 평가하여 수시로 교체하려 든다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국 정부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안정성과 연속성에 영향을 미칠 두 번째 요소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어떤 그룹에 더 의존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국정 운영에 내각보다 자신의 가신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임명직들과 딸 이방카와 사위 자레드, 아들 에릭과 트럼프 주니어에 더 의존하게 된다면 행정부라는 공적 조직이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과 무게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국정이 난맥상을 나타낼 수도 있다. 특히 자녀들의 정치 개입은 온정주의 논란을 낳으면서 트럼프 당선인의 국정수행 동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2017년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산적한 해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초반 어떠한 행보를 보이느냐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 질서 및

국제 질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은 물론 연방의회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안보와 경제에 대한 영향들을 면면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